

# U.S. Daily Briefing

문의 : 워싱턴무역관([seogil.chang@kotra.or.kr](mailto:seogil.chang@kotra.or.kr))

2023.1.13.(금) 제23-05호

◆ **[Focus]** (USMCA) 미국, 북미무역협정 자동차 원산지 규정 분쟁서 패소

◆ **[What's News]**

- (북미) 멕시코 대통령, 북미 수입 의존 축소를 위한 위원회 설치 시사
- (무역통상) 美-인도 무역 정책 포럼(TPF) 장관급 회의 공동 성명 발표
- (국제정치) 미-일 정상회담 개최... 양국 경제안보 분야 협력 등 합의
- (보조금 경쟁) 프랑스 정부, Made in Europe 전략 제안 공개
- (철강) 상원의원, 방향성 전기강판 수입에 232조 관세 적용 요구
- (경제전망) 월드뱅크, 2023년 세계 경제 성장률 하락 전망

◆ **[입법 동향]**

- (의회) 미주 무역/투자/공급망 통합을 위한 AMERICAS Act 초안 공개
- (의회) 美 하원 對中 전략 경쟁 특별위원회 설치안 가결

◆ **[Top Headlines]** 5대 언론사 오늘의 헤드라인

## FOCUS

### [USMCA] 미국, 북미무역협정 자동차 원산지 규정 분쟁서 패소

#### □ USMCA 자동차 원산지 분쟁 배경 및 쟁점

- (배경) USMCA(US-Mexico-Canada Agreement)는 '20년 7월 1일 발효
  - NAFTA 출범 이후 미국-캐나다-멕시코 간 교역 증가와 함께 미국의 무역적자 증가가 트럼프 정부 당시 USMCA 추진 배경
  - USMCA에서 승용차 및 핵심 부품의 역내 부가가치 기준을 기존 최대 62.5%에서 75%로 상향 조정하고, 고임금 노동 부가가치 요건과 철강·알루미늄의 북미산 사용 요건을 새로 추가
    - ⇒ 캐나다와 멕시코는 USMCA 해당 규정의 자동차·부품 원산지 적용 방식과 관련해 미국의 규정 위반을 USMCA 조정위원회에 제소('22.1)
  - 종전 북미 자동차 제조업 공급망은 NAFTA를 기반으로 형성·강화
  - 미국산 고부가가치 부품이 멕시코로 수출되고,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으로 조립된 완성차가 미국으로 재수출하는 형태로 발전

- 미국과 멕시코의 경우 자동차 소재·부품의 역외 수입 비중이 각각 58.6%, 42.9%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의존도를 보임.

<북미지역 자동차 관련 주요 소재·부품 역내·역외 수입 현황>



[자료: 무역협회(2020)]

- (쟁점) USMCA 자동차 관세 특혜 적용을 위한 원산지 계산 방식에서 美-캐나다·멕시코 간 규정 해석을 둔 이견 존재
  - 자동차 관세 특혜 자격을 위해서 △핵심 부품의 북미산 비중 75%, △자동차 전체 북미산 비중 75%를 모두 충족해야 함.
  - 멕시코·캐나다 측 주장 : 핵심 부품(엔진·변속기 등)이 북미산 비중 75% 요건을 충족하면, 전체원산지 계산에서 해당 부품의 북미산 비중을 반올림해 100%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
  - 미국 측 주장 : 핵심 부품의 북미산 비중이 75% 이상이라도, 전체 원산지 계산에서 해당 부품 북미산 비중을 100%가 아닌 해당 비중 만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 (전체원산지 충족에 더 까다로운 원칙 적용)
  - 멕시코·캐나다는 USMCA 협상 당시 역내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 부품이 더 큰 부품의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경우 반올림해 100% 역내 산으로 계산할 수 있는 유연성에 합의했다고 주장. 이를 근거로 USMCA 분쟁조정 제도에 따라 미국의 규정 위반을 제소

## □ USMCA 자동차 원산지 분쟁 판결 결과

### ○ 멕시코·캐나다가 자동차 원산지 분쟁서 미국에 승소(판결일 1.11)

- USMCA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국에 전달한 최종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원산지 규정 해석이 무역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결\*

\* UNITED STATES - AUTOMOTIVE RULES OF ORIGIN (USA-MEX-CDA-2022-31-01)

- USMCA 분쟁패널은 최종보고서에서 동 협정의 자동차원산지규정에는 외국산 부품이 포함된 경우 해당 비중만큼 역내부가가치비율(RVC)을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

※ [참고] 역내가치비율(RVC, Regional Value Content), 철강·알루미늄의 북미산 비중, 노동가치비율(LVC, Labor Value Content)을 모두 충족해야 무관세 혜택 가능. 원산지 규정 미충족 시 그 외 수입 제품에 부과되는 現 관세율 2.5% 부과

- 미국의 원산지 규정 해석과 적용은 USMCA 협정 4.5조 자동차 역내 비중규정과 자동차부록 3조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다고 명시
- ‘대체 단계별 준비제도(alternative staging regimes)’의 승인을 조건부 적용함으로써 자동차부록 8조(Transitions)를 위반했다고도 판단

### < USMCA 자동차 원산지 단계별 요건 검토 절차 >



[자료: KOTRA(2020)]

## □ 현지 반응 및 전망

- 현지 언론은 북미 3국의 엇갈린 반응 보도, 분쟁 승소로 무관세 적용 범위가 넓어져 멕시코와 캐나다의 자동차 소재·부품 기업의 혜택 기대
  - (미국) 애덤 호지(Adam Hodge) USTR 대변인은 미국은 현재 판결 결과를 검토 중이며 분쟁 해소를 위해 다음 단계를 고려하고 있다며 “멕시코·캐나다와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 방법을 찾을 것”이라고 언급
  - (캐나다) 메리 응(Mary Ng) 캐나다 통상 장관은 성명을 통해 “분쟁 해결 절차가 USMCA상의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”라고 발표
  - (멕시코) 타티아나 클루티에르 전 멕시코 경제 장관도 “좋은 소식이라며 북미지역 전체 자동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”이라고 발표
- USMCA에는 항소 메커니즘이 없어, 향후 미국의 대응에 관심 집중
  - 폴리티코는 이번 판결이 미국의 USMCA 분쟁조정 제도 개정 시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하며, 북미 3국이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발효 16년 후에 협정이 종료되는 ‘일몰(sunset)’ 조항에 주목하기도 함.
  - 또한 북미 3국이 추가 합의에 실패하거나, 미국이 판결 준수를 거부하면 캐나다와 멕시코는 해당 피해 금액과 같은 수준의 보복을 미국 측에 가할 권리를 가지게 됨.
  - 한편 북미 3국 정상은 멕시코시티에서 제10차 북미3국 정상회의를 개최(1.10)하고 반도체의 북미 생산을 확대하는 등 공급망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.

\* 자료 : USMCA 분쟁판결문([1.11](#)), 폴리티코([1.11](#)), 인사이드트레이드([1.11](#)), 무역협회, KOTRA 및 무역관 보유자료

□ **(북미) 멕시코 대통령, 북미 수입 의존 축소를 위한 위원회 설치 시사**

- (개요) 북미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 시 멕시코 대통령은 북미의 대외 수입 의존 축소를 위해 3국이 합동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고 발언
  - 해당 발언은 백악관 회담 성과 보고서(팩트시트, 1.10)에 제외됐던 사항으로,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의 사실확인 요구에 즉답 회피
- (상세) 멕시코 로페즈 오브라도 대통령 관련 발언 요약 (1.11)
  - 미국·캐나다·멕시코는 경제, 무역, 상업 관계 강화에 합의
  - 이를 위해 북미지역으로 수입을 기획(planning)하고 대체(substitute)하는 방안을 위한 합동위원회(joint committee) 설치에 합의함.
  - 3국이 각각 4명의 위원을 추천해 총 12명 회원으로 테스크포스 구성
    - \* 멕시코 정부 추천 인사로 △Marcelo Ebrard 외무장관, △Rogelio Ramirez de la O 재무장관, Paquel Buenrostro Sanchez 경제장관 및 업계대표로 Alfonso Romo Garza 내정

< 로페즈 오브라도 멕시코 대통령 회견 발언 녹취 >

we're going to be creating a joint committee aimed at planning and substituting imports in North America so that we may try to be increasingly self-sufficient in this part of the world and to turn development cooperation into a reality, as well as the wellbeing of all the countries of our continent. The United States, Canada, and Mexico will propose -- each one of those countries will be proposing four members for the formation, for the creation of this task force -- of this committee of 12 specialists that not only know this issue we are going to be working on ----- (이하 생략)

- (반응) 북미 3국 간 공급망 연대 강화를 위한 니어쇼어링 동향에 주목
  - 멕시코 개최 북미 정상회담(1.9~10)에서 3국 정상은 경제 파트너십 심화·확대에 집중. 특히 반도체, 친환경, 광물 등 공급망 협력 강조
  - 국제 무역·산업의 급격한 지역 블록화 동향에 현지 전문가 관심 집중

\* 자료 : 로이터통신(1.11), 블룸버그 Gov(1.11)

## □ [무역통상] 美-인도 무역 정책 포럼(TPF) 장관급 회의 공동 성명 발표

- (개요) 제13차 美-인도 TPF(Trade Policy Forum) 장관급 회의가 워싱턴에서 진행됐으며, 양측은 회의 이후 공동 성명 발표(1.11)
  - 미국 측에서는 무역대표부 캐서린 타이 대표, 인도 측은 피유시 고얄(Piyush Goyal) 상공부 장관이 참석
- (안전) 상호 간 무역 이해 보장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
  - (양자 무역) 양국 WTO 분쟁 의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, '21년 1,600억 달러를 기록한 양자 무역을 더욱 촉진할 방안 논의
  - 인도는 美 식약청(FDA)의 원산지 조사 재개를 승인하는 대신, USTR이 美 의회에 일반특혜관세제도(GSP) 재개 관련 긍정 의견 제시할 것을 요구
  - (규제) △ 인도 의회에 발의 예정인 약물, 의료 장비, 화장품 규제안 공개의견 접수와 △ 전자 통신기기 의무 시험 및 인증 규제안(MICTE) 사전 조율 등 규제 관련 정보 교류 확대에 동의
  - (실무 그룹 출범) 공급망·노동 시장 탄력성 강화를 위해 양국 간 정보 교류 및 정책 논의를 지속할 실무 그룹(Working Group) 신설
- (전망) 美-인도 TPF 논의는 '23년 연중 지속 개최 예정
  - 양국은 (1) 분기별 TPF 실무진 회의, (2) '23년 중반 고위 관계자 회의, (3) '23년 말 장관급 회의를 추진하기로 동의
  - 추후 회의를 통해 양국 간 지식재산권(IP), 식품·농업 무역 의제 관련 논의가 심화할 것으로 언급됨.
- (반응) 제13차 TPF, 양국 외교·무역 관계에서 인도의 위상 강화 방증
  - 현지 언론은 인도의 (1) G-20 '23년 의장국 활동 시작, (2) IPEF 주요 4개 의제 중 무역 의제 불참, (3) 4자 쿼드 안보 회의(Quad) 참여 등으로 미국 정책에서 대인도 관계 중요도가 상승했다고 평가

\* 자료 : USTR 보도자료([1.11](#)), 인사이드트레이드([1.11](#)), 폴리τικο([1.11](#)) 등

## □ (국제정치) 미-일 정상회담 개최... 양국 경제안보 분야 협력 등 합의

- 백악관,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정상회담 결과 발표(1.13)
  -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의 군비 확대 등 신 안보 전략을 지지한다며, 이번 조치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미일 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
  - 한반도 비핵화, 대만 문제, 러시아 제재 및 우크라이나 지원 등 역내 안보 이슈에 대해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함.
  - 철통같은 미일 동맹을 재확인한 가운데 한국, 쿼드, 아세안 등과도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
- 양 국가는 경제 분야 협력 확대에도 의견을 모음.
  - 올해 일본에서 열릴 G7 의제를 논의하는 등 G7, APEC 등 국제 회의 개최를 계기로 새로운 경제통상 질서를 확립할 예정
  - 미일 우주 기본 협정 서명, '핵심 유망 기술' 보호조치 등 공급망 안정 등 경제 안보 측면에서도 협력을 강화
- 앞서 기시다 총리는 오전에 해리스 부통령과 조찬 회동을 함.
  - 해리스 부통령은 인도-태평양 지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일본의 새로운 국방·안보 전략과 군비 확대 계획을 환영
    - \* 동 맥락에서 북한 문제를 비롯한 지역 및 세계 현안에 대해서 논의 진행
  - 지난 9월부터 논의된 미일 우주 기본 협정의 서명에 환영하는 등 우주, 반도체 산업, 공급망 안정, 기후 위기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 논의
- 방미에 앞서 일본 총리는 유럽, 캐나다 정상과 회담을 가짐.
  - 佛 마크롱, 伊 멜로니, 英 수낙, 加 트뤼도 등과 경제 안보 분야에 관해 협력을 논의하였으며, 특히 영국과는 상호접근협정(RAA)를 서명
    - \* 상호 파병을 가능케 하는 협정으로 영국은 호주에 이어 두 번째 협정국임

\* 자료 : [백악관\(1.13\)](#), [뉴욕타임즈\(1.13\)](#)

## □ [보조금 경쟁] 프랑스 정부, Made in Europe 전략 제안 공개

- (개요) 프랑스 정부의 'Made in Europe 전략'(1.9자) 내용 언론 공개
  - 폴리τικο(1.13 보도)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, 일련의 미국 산업육성 정책에 대응을 위한 (1) 역내 생산 목표 설정, (2) 국가 보조금 규정 완화, (3) 긴급 주권 기금 조성, (4) 무역 안보 수단 마련 등 주장
- (상세) 일련의 미국 산업육성 정책에 대응한 유럽의 자구책 촉구
  - 민감 산업의 대외 의존도 완화를 위해 '30년까지 역내 생산 목표 설정
  - 핵심 업스트림 산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 및 세제 혜택 확대
  - '23년 말까지 긴급 주권 기금을 신설해 유럽 전략 산업에 투자
  - 유럽 단일시장 수호를 위한 무역 안보 전략과 집행 수단 마련
- (전망) 집행위원장은 미국 산업 보호 정책 대응 방침 공개 예정(2.1까지)  
⇒ EU 정상회담(2.9~10)에서 중점 의제로 격상, 논의 진행 예정

\* 자료 : 블룸버그 GOV(1.11), 폴리τικο 프로(1.13)

## □ [철강] 상원의원, 방향성 전기강판 수입에 232조 관세 적용 요구

- (개요) 민주당 상원의원(세로드 브라운, 밥 케이시)은 상무 장관 수신 서한(1.12)에서 방향성 전기강판에 232조 관세 부과 요구
  - 방향성 전기강판(Grain Oriented Electrical Steel)은 전력 그리드에 사용되는 부품으로서 핵심 전력 인프라, 즉 '국가 안보'와 직결 제품 주장
- (상세) 불공정 수입으로 미국 생산업체 고사, 232조 제재 필요성 강조
  - 한국, 중국, 일본 등의 국내 소비 증가 및 전기차용 무방향성 전기강판으로 생산 전환 등의 영향으로 수입 가격 폭등('17년 이래 262%)
  - 상무부 장관이 해당 제품의 불공정 무역 상황을 재검토하고, 232조 제재 대상으로 신규 지정하도록 요구

\* 해당 품목(HS코드 7225.11) 우리 대미 수출은 3,410만 달러('21년)로 세계 1위

\* 자료 : 세로드 브라운 의원실(1.12), 미국 국제무역위 dataweb 통계

## □ [경제전망] 월드뱅크, 2023년 세계 경제 성장률 하락 전망

- (개요) 월드뱅크의 1월 '세계경제성장률 보고서'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1.7%로 예상하며 전년 6월 분석(3%) 대비 하향 조정 (1.10)
  - 특히 러·우 분쟁, 코로나 등 국제 정세와 고인플레이션에 따른 미국·유럽 등 선진국의 통화·재정 긴축으로 신흥 시장과 개도국이 수출 부진, 투자위축 등 곤란을 겪을 것으로 전망
- (세부 내용) 보고서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의 영향과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올해도 경기 둔화와 무역량 감소 예상
  - (선진국) 인플레이션과 재정 긴축의 영향으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평균 성장률은 '22년 2.5% 대비 하락한 '23년 0.5%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
  - (개도국) 중국을 제외한 개도국의 성장률 또한 고인플레이션, 통화 가치 하락 등으로 '22년 3.8% 대비 하락한 '23년 2.7%로 예측
  - (무역) 보고서는 국제적 경기 불황과 선진국의 수요 둔화로 국제 무역 성장률이 '22년 4% 대비 '23년에 1.6%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
- (반응) 전문가는 '23년 경기 침체 전망에도 인플레이션 해결을 위한 금융 안정화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공조 주문
  - 월드뱅크 관계자는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도 개도국의 금융권이 안정세를 보이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며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선진국의 개도국 인프라 투자 확대를 강조
  - 하지만 미국 내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으로 인한 세계 경기 침체를 가속화를 우려하며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주문

\* 자료 : 월드뱅크 보고서([1.10](#)), 월스트리트저널([1.10](#))

□ **(의회) 미주 무역/투자/공급망 통합을 위한 AMERICAS Act 초안 공개**

- (개요) 1월 11일 현재 의회에서 '미주무역투자법안' (Americas Trade and Investment Act) 초안\*이 공개 회람됨.

\* <https://www.cassidy.senate.gov/imo/media/doc/Americas%20Act%20Senator%20Bill%20Cassidy.pdf>

- 동 법안은 빌 케시디(Bill Cassidy) 상원의원과 마리아 살라자르(Maria Elvira Salazar) 하원 의원이 공동 발의 예정
- 중국으로부터 미주지역으로 리쇼어링(또는 니어쇼어링)을 촉진하고, 중남미 국가들을 USMCA 체제로 흡수하는 내용 포함
- (상세) 미주 경제를 통합할 (1) 무역·투자 진흥 기구 설립, (2) 전략적 공급망 구축, (3) 역내 중국 영향력 견제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등
  - 미주 동반자 협의회(Americas Partnership) 설립 MOU 체결 추진
    - \* 미주 국가 간 경제번영, 반부패, 민주주의 등에서 단일대오 형성
  - 전자 정부 시스템 수립 및 협의회 국가 간 통합 관리
  - 역내 리쇼어링 및 니어쇼어링 금융지원 (재무부 예산 300억 달러 배정)
    - \*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전 비용의 50%, 역내 이전 비용의 35% 지원
  - 미주투자공사(Americas Investment Corporation) 신설
    - \* 미주 전략경제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역내 공급망 전략 집행 등 추진
  - 입법 후 90일 이내 대통령이 캐나다·멕시코와 협의하여 미주지역 회원국의 USMCA+ 가입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도록 명령
  - 상호주의에 기반한 관세 조정을 위해 WTO 회원국과 협상 추진
    - \* 수입품 면세 한도 조정을 통해 리쇼어링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계획
- (전망) 동 법안이 제출되면, 케시디 의원이 소속된 상원 금융위로 이관되어, 법안 문구 수정 등 입법 절차 착수 예정

\* 자료 : 인사이드트레이드(1.11), 빌 케시디 의원실(1.11)

## □ [의회] 美 하원 對中 전략 경쟁 특별위원회 설치안 가결

- (개요) 하원은 공화당 주도 “미·중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” 설치 결의안을 초당적(찬성 366, 반대 65) 승인(1.10)
  - 대중 강경론자인 공화당 마이크 갤러거(Mike Gallagher)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, 총 16명 위원은 공화당 소속 9명, 민주당 7명으로 구성
    - \* Elissa Slotkin, Chris DeLuzio, Bill Foster 의원이 민주당 지명위원이 될 가능성 거론
- (기능) 중국의 경제·기술·안보 관련 발전 동향을 주시하고, 연내 미·중 경쟁 정책 권고안을 하원 및 관련 상임위원회에 제출
  - (권한) 정책 권고안 수립을 위해 청문회 소환 및 기밀 정보 접근 권한이 위원회에 부여되나, 입법 권한은 불인정
  - (조사) 맥카시 하원의장과 갤러거 의원은 조사 우선순위를 (1) 공급망 복원 및 대중 경제 의존도 완화, (2) 국방력 강화, (3) 미국 개인정보 및 지적권 보호, (4) 중국의 기술 전체주의 견제 등 제시
  - (감시) (1) 중국 내 미국 기업 활동, (2) 미국 내 중국 기업 활동, (3) TikTok의 미국 내 사업 (4) 미국 연기금의 대중 투자 (5) 대만 군사·경제 지원 정책, (6) 외교위원회의 수출통제 노력, (7) 해외 투자 감시 심사 지원 등을 집중 모니터링 예정
- (반응) 美 상공회의소는 특위를 통한 경제·지정학적 위협 해결을 기대
  - 중국의 불공정한 상업 관행(unfair commercial practices)과 경제적 강압(economic coercion)을 안보 위협으로 인식, 미국 정부의 체계적인 대중 전략이 미국 기업, 노동자, 농민의 권익을 보호할 것으로 논평

\* 자료 : 의회 보도자료(1.10), 폴리티코(1.10), 미 상공회의소 보도자료(1.10) 등

## Top Headlines

언론사	주요 보도내역
Wall Street Journal	<a href="#">The War in Ukraine Will Be Long. Is the West Ready?</a> (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... 서방진영은 준비되어있는가)
	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가 명약관화한 가운데, 전시체제로 전환한 러시아와 달리 아직 평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서방진영.
The Washington Post	<a href="#">Furor over documents creates unexpected political peril for Biden</a> (기밀문서 논쟁, 바이든에게 예상치 못한 치명타되나)
	지난 목요일, 바이든의 윌밍턴 자택에서 기밀문서가 추가 발견됨에 따라 특검 진행 예정.
New York Times	<a href="#">On the Agenda for Biden and Kishida : How to Make Japan a Military Power</a> (바이든과 기시다의 안건에는 일본 군사력 강화 방안이 포함)
	바이든 미 대통령과 기시다 일 총리, 중국, 북한, 러시아와의 긴장 관련 협력 방안 논의 등 아시아 안보 전략과 공급망 안정 등 경제협력 관련하여 회담
CNN	<a href="#">Yellen warns ‘extraordinary measures’ needed to avoid default</a> (옐런, 디폴트 사태를 피하려면 ‘특정 조치들’을 취해야한다고 경고)
	옐런 미 재무장관은 1월 19일 미국 연방전부가 재정적자 한도에 봉착할 것이라 발언.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에 등극한 이후 첫 의회공방 불가피.
USA Today	<b>Treasury will start “extraordinary measures” to avert U.S. default</b> (재무부는 미국 디폴트 사태를 피하기 위해 특정 조치들을 취할 예정)
	미 재무부는 미 정부의 채무불이행과 이로 인한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다음 주부터 특정한 조치들을 취할 예정

\* 미국 동부시간 1월 13일 13시 기준

## Notice

### 주요 경제통상 일정

\* 주요 경제통상 일정은 매주 화요일 공개됩니다

□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

- (자료발간)

-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규정 마련 동향 및 주요내용(US22-46)
- 필수 에너지·희토류 안보 및 온쇼어링 법안 및 주요내용(US22-45)
- 미국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경과 및 우리 수출영향 분석(US22-40)
- 미국 산업안보국(BIS)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주요내용 및 현지반응(US22-39)
- 바이아메리카 정책 후퇴로 본 IRA 전기차 전망(US22-37)
- 2022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 및 시사점(US22-기획5)
- 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동향 및 시사점(US22-기획4)
- 미국 프렌쇼어링 정책 심층분석과 시사점(US22-기획3)

- (인터뷰)
